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으로 공장 이전 안전성 확보와 생산합리화 통해 제2의 도약 실천



장형순

삼양잉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

1971년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삼양잉크제조(주)로 설립된 이래 지난 35년 동안 전통적인 포장재 아이템인 잉크, 페인트 산업에서 업계를 선도해 온 삼양잉크페인트제조(주)가 26년간의 군포공장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에 공장을 신축,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무한경쟁시대에 안전성 확보와 생산합리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삼양잉크페인트제조(주) 장형순 사장에게 공장 신축 이전까지의 경위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1997년 3월 삼양잉크페인트제조(주) 전무이사로 입사, 1998년 3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임 중인 장형순 사장은 1991년 4월 한국연포장기술협회의 감사를 시작으로, 한국디자인 포장개발원 포장관리사 교육 강사, 연포장 인쇄 기술, 포장기법 등 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재임, 포장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삼양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셨던 한국, 일본의 OB선배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택 공장을 신축, 준공하기까지 애써주신 임직원과 공사에 참여한 협력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형순 대표이사는 “평택공장 이전이라는 대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 제2창업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각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삼양잉크제조(주)로 설립된 삼양잉크페인트제조(주)는



▲ 준공식에서 기념식수 행사를거졌다

1974년 8월에 읍셋 잉크를 생산하는 대한색소(주)를 인수, 읍세트 잉크 및 금속잉크를 생산함으로써 인쇄잉크의 사업영역을 확대했으며, 1980년 7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내·외면 캔코팅 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삼성화학(주)과 합병,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로 회사명을 개명하게 된다.

군포공장 시대를 개막하면서 26년간 포장재 인쇄 재료의 종합 생산메이커로서의 도약해 온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장형순 사장은 “군포공장의 경우, 준공 된지 30여년이 되어 작업환경이 열악해 안전과 생산합리화를 추구하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2003년 1월, 삼영은 안전성 확보와 생산합리화, 신 아이템(Item)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장 이전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2004년 5월 서해안 물류 중심지인 평택시 포승공단에 前 군포공장의 2배 규모인 공장부지 8,100평을 구입, 올해 10월까지 1, 2기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 그러나 공장 이전을 결심하기까지는 부가가치가 적은 잉크, 페인트 품목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터. 장 사장은

“미래를 위한 도전이 이렇게 힘이 들 줄은 정말 몰랐다”고 회상하면서 “직원가족들의 일심단결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국가산업단지인 평택 공장 신축 이전을 계기로 삼영잉크페인트는 5개년도 사업계획 실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 가치 아이템에서도 업계를 선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적인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신뢰에 바탕을 둔 상생의 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포장용 잉크 업계는 용제가격의 상승, 중국 제품의 저가 물량공세, 동종업계의 치열한 가격, 품질경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장형순 사장은 “잉크제조 업체로 개선하였으면 하는 부문이 있다면, 잉크의 1액 범용화”라고 전하면서 “포장재에서 잉크가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높고 폐기량 또한 많아 추가비용은 물론 환경파괴, 외화 절감 등의 차원에서 잉크의 관리가 매우 필연적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포장재 아이템(Item)인 잉크페인트 산업에서 업계를 선도해 온 삼영잉크페인트(주)는 평택공장의 신 아이템(Item) 생산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분야인 전기, 전자재료, 광학재료 등 고부가가치 아이템(Item)에서도 업계를 선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352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2007년 377억, 2008년 400억 매출 달성을 목표로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유익한 동반자 회사로 거듭날 삼영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